

어머니주일/부활절 네번째 주일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4TH SUNDAY OF
EASTER/MOTHER'S DAY

주후 2022년 5월 8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579 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통일304)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19 번 시편 32 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 장 “세번 아멘” (통일 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김재우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출애굽기(Exodus) 1:1-14** 김숙희 집사

찬 양 Anthem “이 가정 주인이 되신 예수께” 찬양대

설 교 Korean Sermon “**국고성을 건축하게 하니라**” 김일선 목사
(They Were Forced to Build for Pharaoh Storage Cities)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353)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275 장 “날마다 주와 멀어져” (통일 333)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하라”고 말씀하지만,

우리는 완고함과 교만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고, 정작 사랑해야 할 가족과

이웃에게 많은 상처를 안겨 주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며 참회하오니,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같이, 우리도 서로 불쌍히 여기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그리고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엡 4:32)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개역개정 **출1:11**)

“So they put slave masters over them to oppress them with forced labor, and they built Pithom and Rameses as store cities for Pharaoh.” (NIV **Exodus 1:11**)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5/8 (주일)	5/9 (월)	5/10 (화)	5/11 (수)	5/12 (목)	5/13 (금)	5/14 (토)
	민16	민17,18	민19	민20	민21	민22	민23
본문	시52-54	시55	시56,57	시58,59	시60,61	시62,63	시64,65
	사6	사7	사8:1-9:7	사9:8-10:4	사10:5-34	사11,12	사13
	히13	약1	약2	약3	약4	약5	벧전1

수/요/ 찬/양/집/회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성경공부 (5/11수 오후7:30)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니” (삿20:1-16)
토요 새벽기도회(5/14토 오전6:30)	“우리를 돌이키시고 구원을 얻게 하소서”(시 80:1-17)

지난 주일(5/1) 말씀 – 하나님 나라 살아내기 (15)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행 1:1-5)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바로) “갈릴리로 가라”(마28:10)는 말씀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행1:4)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또한 어떻게 적용해볼 수 있을까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한 마디로) 실패와 좌절, 그리고 수치와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악몽과도 같았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현실로 인식하며 처절하게 받아들일수록,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이어지는 구원의 역사는 더욱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실패하고 무너진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야만 (우리도) 참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곧 바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8)고 말씀하시지 않고, 1)먼저는 주님을 처음 만났던 “갈릴리로 가라”(마28:10)고 말씀하시고, 2)그 다음에는 실패와 좌절의 자리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행1:4)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모습이며, 이러한 삶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도, (지속적으로) 성령에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 이곳,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부터,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살아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